

2025 오픈월드 소식지 가을호

Vol. 12

International NGO for children



Copyright© 사단법인 오픈월드



2025 Autumn Newsletter

CONTENT

후원이야기

하나 이야기	04
서은이 이야기	06

국내이야기

청년 문화생활 지원사업	08
어르신 식사 지원사업	10
아동 시력증진 사업	12
산불 피해지역 물품 지원	14

해외이야기

미얀마 무료급식 나눔	16
한국-나익 친선병원 착공식	18

오피니언

활동 한눈에 보기	20
후원 안내	22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자연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픈월드가 지원하는 아이들도 가을처럼 티 없이 맑은 얼굴로 건강히 성장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음은 후원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오늘도 오픈월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가을처럼 풍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후원자님이 전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희망으로 열리는 밝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오픈월드 이사장 김정해

엄마의 사랑, 하나의 희망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이지만, 100cm의 키와 13kg의 몸무게로 여전히 여섯, 일곱 살 아이처럼 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장 지연, 지적 장애, 다모증, 골격 및 외모 이상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 유전 질환인 '코넬리아 드랑예 증후군'을 확진 받았고, 이로 인해 뇌병변 장애와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걷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웅얼이 같은 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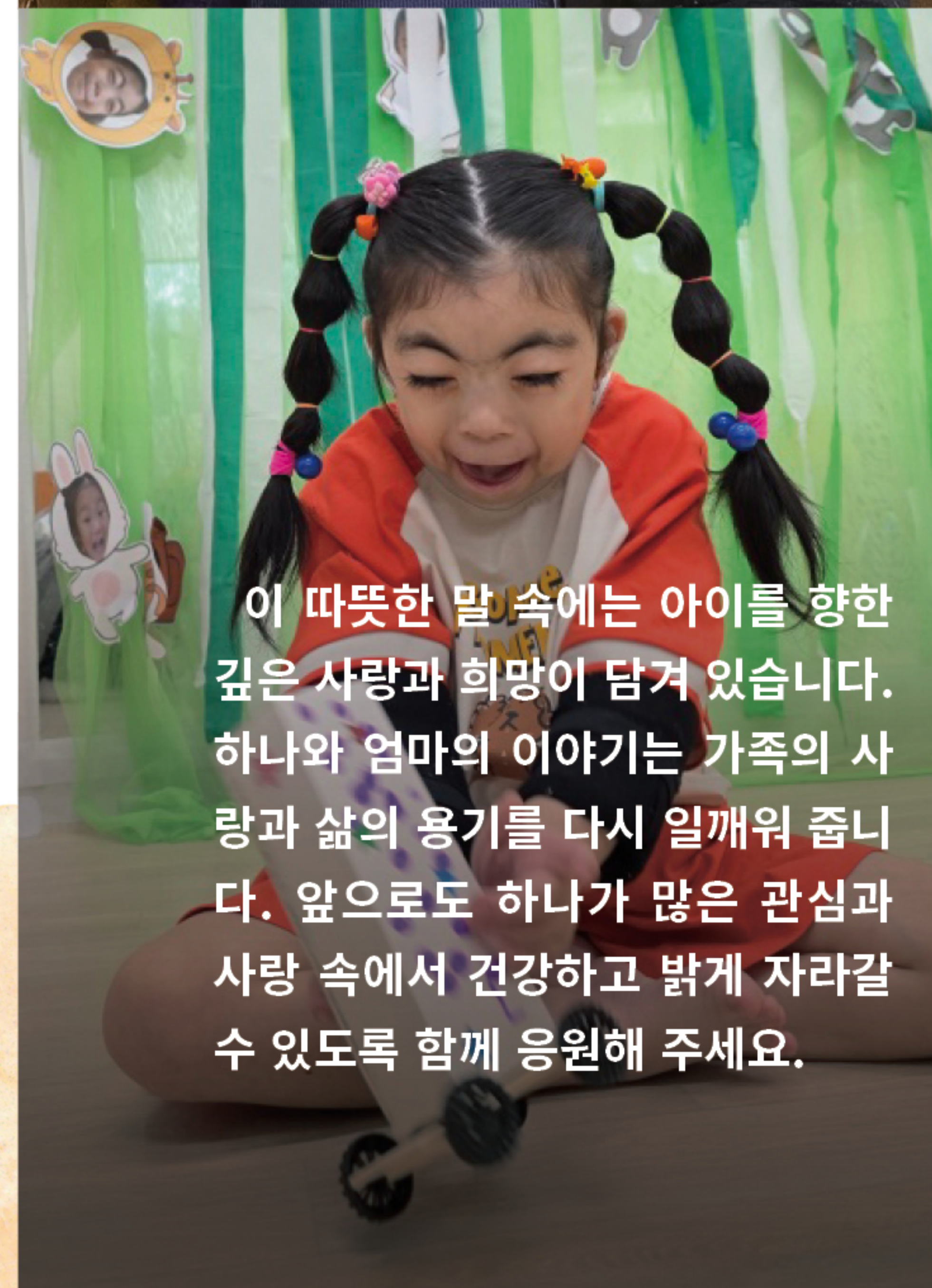
하나는 생후 1년 무렵부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에게 힘들 법한 과정이지만, 하나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

득합니다. 지금은 장애 전담 어린이 집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서 사회성도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엄마가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남동생까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어 부담은 크지만, 엄마는 늘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정보를 찾아 배우고, 온 마음을 다해 두 남매를 돌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가 걷지 못해도,
말을 못 해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요.”



이 따뜻한 말 속에는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와 엄마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삶의 용기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도 하나가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꿈을 향해 날아가는 서은이

고등학교 3학년 서은이는 친구 같은 엄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서은이는 이미 마음속에 확고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미대 진학입니다.

서은이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을 배운 것 같지만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입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미술학원 경험이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다녀본 것이 전부입니다. 늘 미술을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은이의 엄마는 미혼모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서은이도 그런 엄마의 노고를 알기에 묵묵히 공부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더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서은이는 엄마에게 간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녀는 그날 밤 서로 부둥켜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입시 미술 학원비가 큰 부담이었지만 보험과 청약을 해약하며 학원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이어져, 서은이는 주말에만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수업 속에서 서은이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 결과, 서은이는 불과 9개월 만에 교수 평가에 제출한 작품으로 최고 점수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오픈월드는 서은이가 미대 진학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서은이에게 날개가 되어, 앞으로 더 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고립청년지원사업

‘쉼’을 선물합니다.



쉬지않고 달려온 청년들에게 건네는 위로.

언젠가부터 청년에게 ‘쉼’은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픈월드 자체조사에 따르면 청년 37%가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77%가 ‘휴식을 할 때 불안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식은 아파서 내는 ‘병가’나 다음 일을 도모하기 위한 ‘재충전’의 의미가 크고 어느 나라보다 일을 많이 하며 몸과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이에 경쟁에 지쳐 스스로 고립된 청년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하고 ‘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청년, 그리고 쉼’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캠페인은 고립청년을 초청하여 콘서트 뮤지컬 ‘런던레코드’,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객은 꿈과 사랑을 찾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과 닮은 인생을 바라봅니다. 꿈을 좇는 주인공, 어려운 사랑을 이어주는 이웃의 친절을 보며 청년들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끝에는 배우가 공연장에 내려와 관객을 안아주며 “행복하세요”, “괜찮아요”라고 인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픈월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쉴 수 있음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을 이해하는 세상

가끔 TV를 돌려보면 노인빈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빈곤율 통계(OECD 1위), 주변에 돌보는 이가 없어 홀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 고독사 사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급격한 기술 및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한 세대갈등 문제까지. 가난에 쫓기고 질병에 지친 빈곤 노인의 삶은 버겁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말하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 세대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현 세대가 존재함에 있어 노인 세대의 노고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자식만이 건강히 자라길 원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노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부족, 질병악화, 사회적 고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오픈월드는 노인세대를 이해하고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노인세대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소화기능 및 저작기능 약화로 영양흡수가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경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노인세대는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낮은 영양상태를 보입니다. 또한 어르신 대부분은 홀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기에 어르신 영양지원사업은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준비한 식사는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편하고 선호도가 높은 샤브샤브를 준비했습니다. 삼삼오오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채소, 든든한 소고기를 먹으며 연신 감사하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으니 마음까지 든든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픈월드는 어르신 영양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도 힘쓰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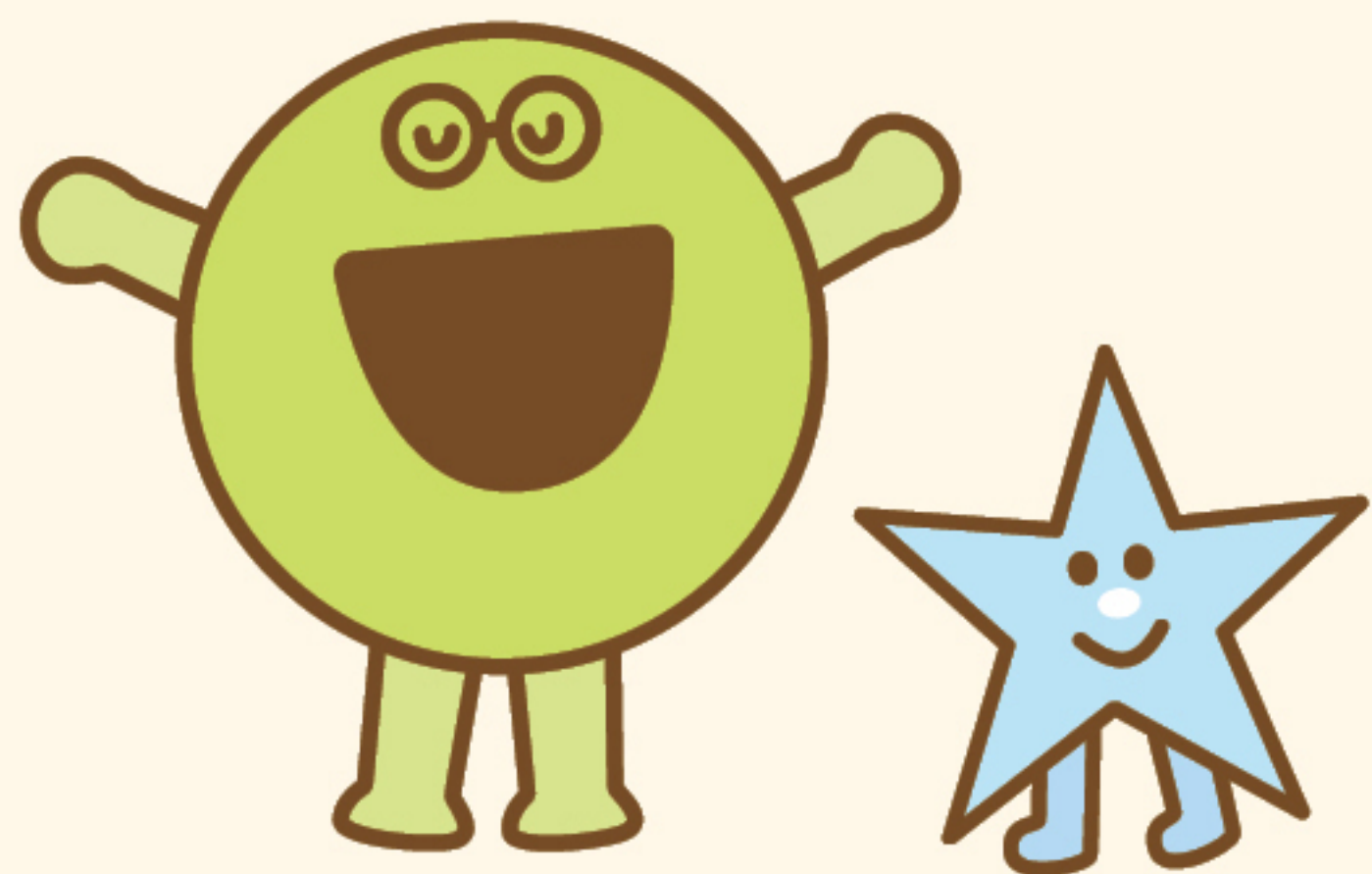
우리 아이,

밝은 아이!

학창 시절, 수업 시간마다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리며 필기 하던 친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날 시력 문제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으며, 시력 변화에 따라 안경을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 시력 문제는 단순히 ‘잘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능력, 사회성, 자존감 등 전반적인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력 교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시력 저하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경제 불안정으로 안경 렌즈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부모님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월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력 교정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아동을 위해 매년 안경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약 3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새 안경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단순 시력 저하뿐 아니라 안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시 수술 후 세심한 시력 관리가 필요한 아동부터,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진 아동까지, 이들에게는 정기적인 시력 검진과 안경 교체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은 가정 형편상 적절한 시력 관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오픈월드의 안경 지원은 단순히 ‘잘 보이게’ 해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고, 또래와 어울리며,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 하나로도 아이들의 하루, 그리고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픈월드는 시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의 눈 높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더 밝은 미래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됩니다.



타오른 절망 속, 꺼지지 않는 마음

2025년 3월 14일, 경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이웃들이 고통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산불이 휩쓸고 간 면적은 10만 4000ha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망자 31명을 포함한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택 3천 7백 여동이 타버리면서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기치 못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너무 빨리 번진 산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물건도 챙기지 못한 채 정든 집을 떠나왔어야 했습니다. 추억과 함께 편히 쉴 수 있었던 집, 동네 아이들이 뛰놀던 뒤뜰, 삶을 일구던 모든 공간이 새까맣게 불타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예상보다 빨리 마을을 덮쳐오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챙길 여유도 없이 안전지대(대피소)로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피소 안에는 기본적인 생필품과 음식이 부족했고 주민들은 좁은 텐트에서 밤잠을 설치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 상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다.

이에 오픈월드는 산불피해 긴급구호를 결정했습니다. 긴급구호 첫 단계로 경북 안동시 대피소와 연락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오픈월드 직원들은 사전에 조사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트럭에 실어 대피소를 향해 갔습니다. 250km 먼 길이였지만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산불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피소 도착 후 주민들은 환한 얼굴로 직원들을 맞이해줬습니다. 주민들은 지원한 생필품으로 대피소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했고, 간식으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은 물품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경상지역 산불피해 지원사업은 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뤄졌습니다. 산불피해지역 긴급구호에 참여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픈월드는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재난 구호에 힘쓰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진의 아픔을 넘어, 나눔으로 피어나는 희망



✦ 미얀마를 덮친 비극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지역 만달레이주와 사가잉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은 평화롭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약 8,000채의 건물 붕괴는 현지 주민들을 참담한 현실과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 만달레이주 외곽 잉와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도움 요청

많은 지진피해 중에서도 잉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피해가 심각했는데, 철골구조가 아닌 벽돌로만 지은 집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했습니다. 특히 강을 끼고 거주하는 시민들의 가옥과 생명의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지진발생 후 초기에는 많은 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어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간이 천막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책임자들은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식사도 어려워진 상황이며, 외부의 도움, 특히 무료 급식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 따뜻한 한 끼, 희망을 심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의 절박함 앞에 오픈월드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인 ‘식사’ 해결을 위해 무료급식 차량으로 여러 피해 마을에 따뜻한 식사와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주민들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환영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지 봉사자들은 작은 손길이지만 위로가 됨을 느끼며, 고통받는 이들의 눈빛 속에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희망으로 자라는 나눔의 씨앗

한 끼의 나눔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이들의 무너진 삶 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나눔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픈월드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재난 이웃에게 꾸준히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희망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한국-나익 친선병원 착공식

“

지난 5월 5일, 오픈월드는 필리핀 카비테주 나익시에서 한-나익 친선병원(Korea-Naic Municipality Friendship Hospital)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하고, 착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나익시의 Raffy C. Dualan 시장과 보건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오픈월드에서는 김정해 이사장과 문진환 상임이사가 함께하였습니다.

”



나익시는 마닐라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빈민가 해체 및 인구 분산의 영향 아래 취약계층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나익 친선병원은 모자보건 전문병원으로 총 20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상반기 완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완공되면 24시간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을 갖춘 나익시 최초의 공공 의료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해 이사장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건 협력 모델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오픈월드는 그동안 나익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아미사 무료진료소 운영, 간식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나익 친선병원이 완공되면, 기존의 아미사 무료진료소와 더불어 나익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 오픈월드 활동 현황

우리의 발자취



- 01 · 설 명절 물품 전달
<사랑의 오픈상자>
· 설 명절 아동 한복 나눔



- 02 · 스리랑카 콜롬보
결식 아동 밀팩 나눔



- 03 · 고립 청년 지원 사업
<청년, 그리고 씬>
· 어르신 영양 지원 사업



- 04 · 국내 산불 피해지역
물품 긴급지원



- 05 · 필리핀 한국-나익
병원 설립 착공식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06 · 오픈월드 & 강서구청
업무협약식
· 영유아 종합 지원 사업
<영유아 쓰리UP>



- 07 ·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
무료 급식 나눔
· 여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너의 꽃, 필 무렵>



- 08 · 발달 교육 및 실습
<영유아 발달UP>
· 영양 교육 및 실습
<영유아 건강UP>

후원 안내



정기후원하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후원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시후원하기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일회성으로 나눔을 전하는 후원방법입니다.

후원회비 송금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금융결제원 기관으로부터 자동이체를 승인받아 철저히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사)오픈월드는 외교부 소관으로 허가받은 국제NGO 사회공헌비영리법인입니다.

변경사항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셨나요?
통장계좌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후원회비를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후원계좌(농협) : 317-0015-9679-41

Tel. 02-2608-20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영인빌딩 403호)

www.openworldkr.org

A bright world of hope, OPENWORLD

세상을 여는 오픈월드



국내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

1그램, 1센티

“1그램, 1센티”는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의
따뜻한 이유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 아기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후원하기

“1그램, 1센티” 캠페인 후원금은 국내의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 지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02-2088-108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영인빌딩 403호)
Tel. 02-2608-2030
www.openworldkr.org